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울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뒤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다시 “마리아야.”라고 불렀어요. 이번에 마리아는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동산지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라 이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거예요. ●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읽을 수 있어요.



이 장을 떼어 낸 뒤 반으로 접으세요. 그런 다음, 그림을 들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